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첫 재인증 성공했다

광주시·전남도·담양군·화순군 공동협력 가장 높은 평가

담양 추월산 구상암·담양습지 등 지질 명소 4곳 추가 발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첫 재인증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27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첫 번째 재인증에 성공해 오는 2026년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2022년 9월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재인증이 유력할 때 주는 ‘그린카드(Green Card)’를 부여한데 이어 지난 24일 재인증을 공식화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최초 인증 당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지난 4년간 충실히 이행했고, 특히 무등산이라는 하나의 지질유산을 둘러싼 광주시·전남도·담양군·화순군 등

4개 지자체가 지질공원 운영에 공동 협력한 점을 가장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양 추월산 구상암을 비롯해 담양 하천습지, 금성산성 화산암군, 담양 가마골 등 지질 명소 4곳을 추가 발굴하는 등 최초 인증 때 권고사항이었던 지질유산과 자연·문화유산 사이의 연계 강화에 노력해온 점도 인정받았다.

특히, 전 세계 15개 신규 신청지역 가운데 5곳이 레드카드(Red Card)를 받아 최종 인증에 실패하는 등 유네스코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재인증을 확정 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새로운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권고사항은 ▲유네스코 브랜드 공동 홍보 ▲방문객 센터와 안내센터 추가 설치 ▲지질명소와 관련된 지역 정보(설명·문화 등) 활용 ▲기후변화·자연재해·지속가능개발 목표 등을 담은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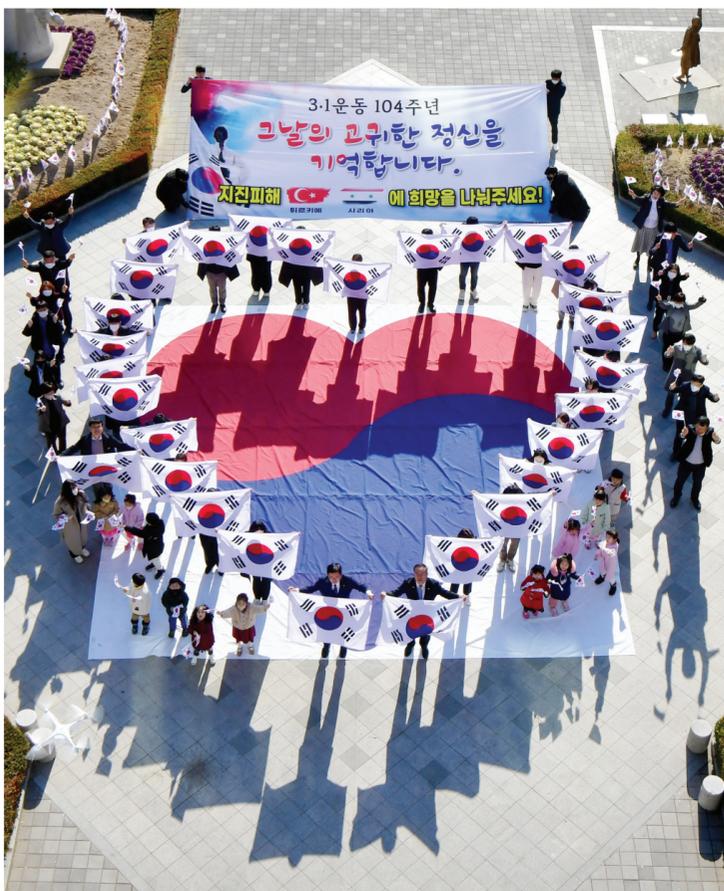
이에 대해 4개 지자체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

인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재인증 확정이라는 쾌거는 무등산이라는 세계적 명산을 둘러싼 4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질·역사·문화·생태적 가치의 재발견”이라며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념해 오는 3월4일 을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재인증 축하 기념품 증정, 포토부스 운영, 사진전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승호기자



104주년 3·1절 앞두고 태극기 퍼포먼스

제104주년 3·1절을 이틀 앞둔 27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 공직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3·1 운동을 기리는 동시에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를 향한 온정 나눔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민주, 30여표 이탈

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표
 출석 297명 중 과반 찬성 안 돼 부결
 무효표 논란 불거진 2표는 의장 판단

‘워렌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상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해 이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

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환기자

‘한국 프로야구 성지’ 무등경기장 5년 만에 새얼굴

리모델링 막바지...5월 말 개장 예정

프로야구의 성지이자 타이거즈 V10의 요람인 광주 무등경기장이 5년간의 단장을 마치고 오는 5월 시인 앞에 새얼굴을 드러낸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 말 개장을 목표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이어 온 무등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는 기금과 시비 등 489억여 원이 투입됐다.

부지 면적은 3만6223㎡로, 야구장 주변에는 조깅트랙·산책로·체육공원·녹지공원·조각공원·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주민 쉼터 공간이 만들어졌다. 또 수영장과 인공암벽을 오르는 클라이밍장도 조성됐다.

야구장은 중앙(CF) 110m·좌우 외야(LF·RF) 95m 규모로, 중·고교·대학 야구 경기가 가능하다. 1037면의 주차장도 조성, 주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지어진 무등경기장은 프로야구와 역

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국내 야구의 성지로 여겨졌던 무등경기장에는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26만1182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첫 우승을 거둔 1983년 37만7964명이 “타이거즈”를 연호했다. 32년간 10차례 우승컵이 들어 올려졌으며, 1030만여 명이 무등경기장에서 추억을 새겼다.

광주시는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주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공사를 시작했다.

최이슬기자

3·1삼일절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